



‘드래그 레이스’ 달아오른 F1 포물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 98일을 앞두고 18일 목포 옥암지구 서해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열린 ‘드래그 레이스’에 참가한 튜닝카들이 질주하고 있다. 드래그 레이스는 단거리에서 가속만을 겨루는 경주로 이날 대회에는 250여대의 튜닝카가 참가해 1km구간에서 기량을 겨뤘다. >관련기사 3면 /목포=니명주기자 mjna@

골칫덩이 산업쓰레기 돈 된다

여수산단 4개사 245억 수익 창출
CO₂ 줄이고 생태산업단지 탈바꿈

#1 여수산단 내 4개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 화학물질이 함유된 부산물 때문에 골치다. 처리 비용만 연간 16억5000만원이 든다. 하지만 S사에겐 골칫덩이인 이 부산물이 (주)정흥케이칼에겐 소중한 자원이다. 정흥케이칼은 이를 재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를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연간 수익이 43억5000만원에 달한다. 연간 7만5000t 규모의 CO₂를 줄이는 효과는 덩이다.

상으로 이 폐기물을 수거해가고 있다. 알앤이는 폐인조대리석을 열분해해 아크릴수지와 순수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기술로 연간 19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제일모직은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알앤이는 무료로 원료를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공장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있다. A공정의 골칫덩이 쓰레기가 B공장에서는 원료·에너지가 돼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난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한 생태산업단지(EIP·Eco-Industrial Park) 구축 사업의 성공 사례다.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EIP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생태산업단지(EIP·Eco-Industrial Park)=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 산업단지다.

10월부터 5년간 여수산단에서 EIP 1단계 구축사업을 추진, 23개 과정을 연구 개발해 4개 과정을 사업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연간 244억9000만원의 신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폐부산물 3만6170t을 재활용함으로써 SOx(유황산화물) 1만4910t, CO₂ 8만9200t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여수=박정욱기자 jwpark@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민심수습 개각, 호남민심 외면하나

靑 수석 철저 배제 이어 입각 거론 인사도 극소수

지난 15일 마무리 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또다시 철저히 배제되면서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무산될 경우 지역민심이 크게 술렁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8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 이후 정부 부처 개각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착잡함을 넘어서 흥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을 과감하게 중용, 최소한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은 ‘철저한 배제’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1~2명에 그치는 등 극소수에 불과했었고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 결과에 대한 지역민심의 충격은 상당하다.

광주시 고위 공무원은 “이번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서는 최소한의 지역적 배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무리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인사 결과는 이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직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 광주·전남은 없다’라는 지역주의적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임박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가 마땅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여권 핵심부 인사들은 인재 풀의 한계를 거론하며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만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개각을 앞두고 중앙 단계 및 관계에서 장관 발탁이 거론되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 및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도 지역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사실상 소통 단절의 상황에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통합의 큰 그림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개각과 청와대 비서관 개편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과감한 발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 결과에 대해 지역민심은 낙담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조만간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 국민통합형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 첫 고백

내달초 출간 ‘DJ 자서전’에 출생 내력 담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8월 18일)를 앞두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출간될 자서전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2004년부터 2009년 서거 직전까지 자서전을 구상하고 일기와 메모를 포함해, 각종 연설문과 인터뷰 자료, 재임 중 국정기록들을 검토해 왔으며 100시간이 넘는 구술을 남겼다.

형식은 자서전이지만 원고는 김택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집필했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100시간 가까운 구술을 받고 여기에 김 전 대통령의 일기 등을 바탕으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싸여왔던 출생의 비밀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털어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집필을 맡은 김씨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 첫 머리에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는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차남이었다. 두번째 부인의 3남 1녀 중 맏이로 서자(庶子)가 됐다. 처음으로 고백한다”고 밝혔다.

자서전은 전반기인 ‘출생부터

1997년 대선 전까지’와 후반기인 ‘집권 이후 서거 직전까지’로 나눠 6관장장한 정치인생과 고비 때마다 느낀 소회, 세 아들 홍일·홍업·홍길씨가 로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구속된 데 대한 심경도 담겨 있다. 미공개 일기에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삼인’측은 책 제목은 ‘김대중 자서전’으로 하고 각 700쪽 안팎의 상·하권으로 출간되며, 향후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도 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식은 8월 10일 오후 5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율형 사립고 지정
자율형 사립고 지정
보통고 졸업생 인제 양성을 위한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통고등학교

익교실림 56주년
익교실림 56주년 (1954 - 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강!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녹색 희망이 활짝 웃습니다!
내일 걱정 없는 하세를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맑기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친환경 실천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